

<위대한 개츠비>에서 만난 문학과 영화의 융합 - 컴퓨터 그래픽이 미치는 영향

최선화*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The Convergence of Literature & Movie in <The Great Gatsby> - The Impact of Computer Graphics

Sun-Wha Choi*
College of Liberal Arts, Anyang University

요약 1920년대를 다룬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루어먼은 2013년 영화로 재현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독자가 플롯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지만, 영화 <The Great Gatsby>는 소설의 요소에 시청각적인 효과를 융합시키고 있다. 데이지는 패션의 아이콘으로 그녀가 입고 있는 프라다, 샤넬, 그리고 티파니 같은 보석은 재즈 시대의 의상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하여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영화에서 시사하고 있는 “재의 계곡”, “초록 불빛”, “이스트 에그”, “웨스트 에그”와 같은 그 지역이 주는 상징들은 좀 더 직접적이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개츠비 대저택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광란의 파티는 정신적인 혼란과 물질적인 풍요라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여기에 배우들의 명연기가 소설의 주제를 잘 부각시켜줌으로서 영화로의 융합은 소설을 좀 더 대중적인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인터넷 자료를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키워드 : 융합, 영화, 어메리칸 드림, 재즈 시대, 1920년대

Abstract In 2013, Baz Luhrmann's movie re-made Fitzgerald's novel, 『The Great Gatsby』. In Novel, readers keep trace of the plot with their imagination, but in Movie <The Great Gatsby>, movie director comes together to create visual and auditory elements of it. Daisy Buchanan is a fashion icon, wearing Prada, Chanel, and Tiffany's jewelry, which reproduce the costume of Jazz Age, and make viewers well understand that of Jazz Age. Symbols like "Ash Valley", "Green light", "East Egg", "West Egg" are presented more directly in movie. Roaring parties held in Gatsby's great mansion was made by computer graphic, and its enormous scale also reflects the mental chaos and the material affluence in those age. Additionally, actors excellent show highlights the theme of the novel. With the adaptation of novel, the film finally achieves more appealing art in front of the public. This thesis investigates these more logistically with the materials of internet.

Key Words : Convergence, Movie, American Dream, Jazz Age, 1920s

1. 서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부터 미국 대공황이 시

작된 1929년까지 미국의 1920년대는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인 이른바 재즈 시대(Jazz Age)였다. 1920년대의 태평과 광란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

대한 암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래 없는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쟁의 끔찍한 공포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자 새 삶을 살아 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가치관을 상실한 채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하며 극단적인 삶의 방식인 사치와 방탕에 의지한 삶을 살았다. 이와 같이 세계 1차 대전은 이전의 사회적 관습을 철저히 무너뜨렸고, 미국 건립 전통인 금욕과 실용성으로부터의 단절을 가져 왔다.

F.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 1896- 1940)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이러한 1920년대 미국의 삶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전쟁에 대한 환멸과 도덕적 혼란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의 매력에 의지하지만 결국 황금만능주의와 도덕성 결여로 때문에 파멸되어가는 제이 개츠비(Jay Gatsby)를 통해 미국인의 꿈이 붕괴 되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전쟁은 개츠비의 성장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도 그가 바깥세상을 내다볼 기회를 주었다. 또한, 그는 전후 주가폭등과 수정헌법 제18조에 규정된 금주령 하에서 불법 행위를 통해 단시간에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된다.

『위대한 개츠비』는 동명으로 네 편의 영화(1926, 1949, 1974, 2013)와 오페라(1999), TV영화(2000)로 제작되었다. 이 소설이 다양한 시대를 거쳐 수차례 영화화된 이유는 작가의 사회비판 의식, 소설의 예술적 기법을 바탕으로 1920년대 미국 사회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꿈, 나아가 인간의 이상향에 대한 염원과 좌절 등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베즈 루어만(Baz Luhrmann) 감독은 2013년 영화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의 이중적인 모습,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의 심연에 자리한 이기심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고전문학을 대작으로 각색한 이 영화는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세련된 이야기로 우아하고 매우 낭만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제이 개츠비를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멋지게 연기하고 있다. 매우 특별하게 볼거리를 제공했던 <몰랭루주>와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출했던 감독 베즈 루어만에 게서 예견했듯이, “재즈 시대” 이야기가 뛰어나게 만들어져 정서적인 요소들과 멜로드라마로 가득 채워졌다[1].

루어먼 감독은 영화를 통해 소설에서 느낄 수 없었던

시각적, 청각적인 면을 극대화하여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개츠비 저택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광란의 파티는 전후의 경기호황과 도덕적인 혼란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영화 내내 재생되는 1920년대 재즈 음악은 현대의 물질만능을 비판하는 힙합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재즈에 맞춰 강 건너 테이지가 있는 곳을 향해 손을 뻗는 개츠비의 꿈은 초록빛으로 표현됐다. “재의 계곡”(A valley of ashes)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화려한 스포츠카들과 강한 대조를 이루며 그려진다.

다음으로 루어먼 감독은 뛰어난 캐릭터 분석을 통해 그 만의 인물들을 만들어 냈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Leonardo DiCaprio)가 연기하는 인물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만 결국 비극에 이르는 개츠비이다. 또한, 사랑과 돈 앞에서 갈등하는 데이지 역은 캐리 멀리건(Carrey Mulligan)이 재현하고 있다.

영화는 정신병원(The Perkins Sanatorium)에서 닉 캐러웨이(Nick Carraway)가 회고적으로 서술하는 일인칭 시점의 소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스토리를 뛰어넘어 재구성했고 시의적절한 영상과 음악을 결합시키면서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재해석한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이 어우러져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로 재탄생했다. 본고에서는 루어먼의 영화에 피츠제럴드의 소설이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되어 소설의 보편적인 주제를 잘 나타내며 영화라는 대중적인 예술을 잘 승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925년 출판된 『위대한 개츠비』는 1년 뒤인 1926년 무성영화에서 워너 백스터(Warner Baxter), 1949년 앨런 래드(Alan Ladd), 1974년 로버트 레드포드를 개츠비로 내세워 세 번이나 의욕적으로 영화화되었으나, 소설의 주제와 감동을 충실하게 표현하지는 못했다.

루어먼은 원작 소설을 영화에 온전히 녹여냈다. 그는 소설을 충실하게 영화화하기 위해 두 시간 정도에서 등장 인물들 간의 대화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선형구조로 초점을 맞추어 소설에 충실해지려 노력했다고 밝혔다[2].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개츠비가 늘 바라보았던 “어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초록불빛”(Green light)의 영

상에 닉의 독백이 자막으로 더해져 소설의 주제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영화의 특성을 살려 더욱 강조하고 있다. 닉의 독백은 개츠비와 그 주변 인물들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한편 작가의 생각도 객관적으로 잘 반영한다. 호의적인 비평가들은 영화가 소설의 핵심을 잡아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평했다[3].

영화에서 나레이터로 등장하는 닉은 토비 머과이어(Tobey Maguire)가 맡아 소심하면서도 다정한 성격의 소신있는 인물을 연기하고 있다. 닉은 미국 중서부미네소타 주 출신으로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하나 아직 타락하지 않아 도덕적 순수성과 청교주의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인간을 비난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다 너처럼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는 말에 영향을 받아, 그는 인간의 행위를 경솔하게 비난하지 않게 된다. 그는 예일대학교를 졸업하여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데이지와는 사촌 관계이며 데이지의 남편 탐(Tom Buchanan)과는 예일대학 동문이다. 피츠제럴드는 이러한 닉을 화자로 내세워 개츠비와 다른 등장인물들의 일을 언급할 때 그의 의견이 누구보다도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인식하도록 한다. 영화의 첫 부분에서 닉은 정신병원에서 머물며 병원장인 퍼킨스 박사(Dr. Walter Perkins)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정신적 편력을 기록하는데, 이를 자서전 식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화자이면서 동시에 작중인물로서, 개츠비와 관련된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고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사건에 개입하기도 한다.

분명히 피츠제럴드가 콘래드를 읽고 긴장함을 줄이지 않고 스토리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화자 역할을 하는 말로를 활용하는 것을 알아냈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닉은 이상적인 말로 역할을 한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부캐넌 부부와 연관이 있고 (데이지는 사촌이고 탐은 예일대 동문이다.), 개츠비와는 이웃해 살고 있어 (개츠비의 화려한 저택 옆 작은 집에 세 들어 산다) 판단을 보류하는 습관을 지니게 된다[4].

그는 급변하며 사치와 향락이 난무하는 뉴욕 생활의 매력에 끌리면서도 그런 생활이 복잡하고 파괴적임을 깨닫는다. 영화에서 닉은 자신을 정직한 부류의 인물로 생

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다. 그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돈과 타락, 부패의 시대적 흐름 속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닉은 개츠비가 죽은 후에, 물질적 부만을 추구하는 도회 생활을 청산하고 한가한 생활을 되찾으려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영화에서 닉은 뉴욕 생활에서의 후유증으로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이며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짐으로써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루어먼은 『위대한 개츠비』에 나온 1922년 히트곡 “세벽 세시”(Three O'clock in the Morning)를 포함하여 영화 안에 당시의 인기곡 70여 개를 삽입했다. 또한, 비욘세(Beyonce Knowles)의 “크레이지 인 러브”(Crazy in Love), U2의 “러브 이즈 블라인드니스”(Love Is Blindness)를 리믹스한 영화음악도 사용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으로 관객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오게 되었다[5].

피츠제럴드가 “어메리칸 드림”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소설에서 사용한 상징적인 이미지는 “초록 불빛”, 윌슨의 자동차 정비소가 소재하고 있는 “채의 계곡”(Ash Valley)과 그 곳에서 있는 광고판인 “T. J. 에클버그 안과외사의 두 눈”(The Eyes of Doctor T. J. Eckleburg)이다. 초록 불빛은 개츠비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데, 이는 곧 연인 데이지이다. 영화에서 초록 불빛은 그가 사랑하는 연인 데이지의 집이 있는 강 건너편 “이스트 에그”(East Egg)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강을 사이에 두고 개츠비가 사는 저택 건너편 데이지의 저택에서 나오는 불빛을 손을 뻗어 닿고자 하며 그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작품에서보다 더욱 시각적으로 영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개츠비가 사는 웨스트 에그(West Egg)와 탐과 데이지가 사는 이스트 에그(East Egg)의 지형은 상징성을 지닌다. 달걀 모양을 한 두 지역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함축한다. 뉴욕에 좀 더 가까운 웨스트 에그는 ‘뉴머니’(New money)를 대표하며 그곳에는 개츠비와 같은 신흥부자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스트 에그는 ‘올드머니’(Old money)를 대표하며 그곳에는 탐과 같이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나 재산을 세습받은 전통 귀족들이 살고 있다.

개츠비는 자신의 돈 때문에 부패한 인물은 아니다. 그에게 돈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저택에서 방탕하게 소비하며 극도로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번쩍이

는 차를 몰고 값비싼 옷을 사들이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데이지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그녀에게 가치 있는 인물인 재력가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데이지의 사랑을 되찾지 못하면 그의 집, 파티, 차, 의상 등은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된 닉은 다른 부유한 사람들보다 개츠비가 훨씬 알게 된 부유임을 알게 된다. 개츠비의 저택에서는 주말마다 광란의 파티가 열린다. 영화에서 파티의 화려함은 컴퓨터 그래픽과 힙합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현된 재즈 음악을 통해 그려진다.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파티를 주최하는 개츠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파티를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면 그만인 것이다. 이 퇴폐적인 행사에서 드러나는 공허한 환호는 돈과 쾌락을 통해 방출하는 욕망이며, 이는 변질된 ‘어메리칸 드림’을 상징한다. 개츠비의 저택은 19세기 말에 완공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맨리 해변(Manly Beach) 소재의 고색창연한 대학 건물을 촬영장으로 하여 파티의 위용을 더할 나위 없이 잘 나타낸다[6].

감독은 개츠비의 생활방식에서 아주 많은 탄성을 자아낼 것을 찾는다. 피츠제럴드는 그의 타락을 공허한 ‘재즈 시대’의 도덕적 고발로 표현했지만, 루어먼은 흥미를 더하기 위해 소설에서보다 영화에서 더욱더 화려한 파티, 자유로운 음주와 이국적인 여성들을 등장시킨다. 영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지나치게 파티가 계속되는 데, 이 지나침은 피츠제럴드가 회화한 것이어서 대단한 아이러니로 여겨진다[7].

1920년대 당시 미국에서 신여성들은 “플래퍼”로 불렸고, 이들의 ‘찰스턴 댄스’(Charleston dance)는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진하게 화장하고 폭음하며 줄담배를 피우면서도 천진스러운 매력을 품은 신여성들은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던 시대의 소산으로 ‘재즈 시대’의 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했다. 영화에서는 이들을 현대의 명장들(프라다, 미우미우, 티파니, 샤넬 등)이 만든 의상과 보석들로 치장했다. 관객들은 이 유행이 복고된 것처럼 느끼며 흥겨운 음악과 함께 그 시대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개츠비의 상대이자 속물인 데이지 역을 맡은 캐리 멀리건은 현대적으로 재현된 재즈 시대의 신여성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고 있다. 체격과 목소리도 역할에 적합했다. 그녀가 애교를 부릴 때, 돈 냄새를 풍기는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라는 설정에 잘 들어맞는다[8]. 허영에 사로잡힌 그녀는 쉽게 사랑에 빠지며 무책임하고 화려한 것을 추종하며 자신의 노력 없이 매사가 저절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고 달아나는 유형의 인물이다.

탐과 데이지는 경솔한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부쉬 버리고 난 뒤 돈이나 엄청난 무관심 또는 자기들을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 뒤로 물러나서는 자기들이 만든 쓰레기를 다른 사람들이 치우도록 했다[9].

데이지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한 개츠비는 영국제 셔츠로 가득한 선반에서 셔츠를 하나하나 꺼내 던진다. 데이지의 머리 위로 던져지는 수많은 셔츠들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개츠비의 마음을 가장 로맨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데이지는 셔츠 더미 속에 묻혀 지난 5년을 되새기며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너무, 너무 아름다운 셔츠들이야. 너무 슬퍼. 한 번도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들은 본 적이 없거든 (119)” 데이지의 이러한 대사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보다 개츠비의 삶이 더 멋있고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다. 탐의 아내로서 데이지가 누리고 있는 상류층의 삶은 어느 누구보다도 풍족했으며 화려했지만, 그녀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허영심과 공허함은 커졌다. 그녀가 슬퍼한 이유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개츠비라는 남자가 어찌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보다 더 화려한 삶을 선물해 줄 수 있지만, 자신이 개츠비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데이지는 사랑했던 개츠비가 전쟁터로 나가자, 정신적인 외로움을 겪으며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염원하는데, 탐이 등장하면서 그녀는 현실적인 사랑을 선택하게 된다. 탐의 강인한 외모, 성격,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은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첫아이를 낳고 아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예쁜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데이지의 대사는 그녀의 허영심을 단적으로 채워주는 유명한 대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데이지는 개츠비와 재회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탐과 개츠비를 두고 더욱 화려한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울질했다. 그리고 탐을 선택하게 된다. 개츠비가 쌓아온 부와 명예

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도덕적 혼란과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탐과 데이지는 전후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방황하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도덕적 마비 상태 속에서 금전만능주의에 빠둔이던 뉘는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다. 톰과 데이지는 하나의 쌍을 이루며, 둘이 하나로 합쳐질 때 완벽한 존재가 된다. 결말에서도 결국 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바로 완벽한 탐욕을 상징한다.

탐은 자신의 후천적인 노력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에 의존하는 존재다. 그의 강인한 육체적 자질과 풍부한 재산 그리고 강한 욕심은 집안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돋보이며 완전하다. 하지만 그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불완전하다. 그의 정신은 허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데이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지만, 곧 향락에 빠져든다. 그는 끊임없이 욕망의 불구덩이로 뛰어들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자신과 동일한 존재인 데이지의 존재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비로소 하나가 된다. 데이지는 탐과 다른 듯하면서도 한편으로 같은 존재다. 그녀는 분명 매력을 갖추었지만, 이는 결국 상대를 유혹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상대가 자신을 보고 느끼는 바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가 개츠비의 절절한 구애를 거절한 너머에는 자신은 결코 그런 한 남자의 사랑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들어있다. 그녀의 나약함은 교통사고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단지 흉내였을 뿐이다. 그녀의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법조차 배운 적이 없는 미성숙한 개인인이었던 것이다.

개츠비의 비극은 이런 부류의 데이지를 진정으로 사랑한 데서 비롯된다. 데이지가 개츠비의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로 머트를 죽이게 되자, 개츠비가 그 죄를 뒤집어 쓰게 한다. 개츠비는 데이지의 사랑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데이지의 전화를 기다린다.

소설의 또 다른 상징은 재의 계곡이다. 회색 재의 계곡에서 느껴지는 황량한 분위기는 번영을 구가했던 미국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시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회색

의 잿더미로 표현했다. 탐의 정부인 머트는 숨막힐듯이 황량한 이곳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탐의 사랑을 갈구한다. 하지만 탐에게 그녀는 단순한 성적 욕망을 배출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 그녀의 남편 윌슨(Wilson)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황량한 이곳을 떠나고자 하지만, 그녀의 죽게 되자 현실을 비관하게 된다.

“차종이 뭔지 알아요.” 윌슨은 탐을 주시했다. 탐은 “... 오늘 오후에 내가 몰던 노란색 차는 내 차가 아니요, 알겠어요? 나는 그 차를 오후 내내 본 적이 없어요.”(147)

아내와 놀아난 자가 그놈일 테지. 어쩌면 그래서 아내를 죽였을 거야.-윌슨/ 그런 놈에겐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잔 짓값은 치러야 마땅해.-탐(영화)

탐은 교통사고로 머트를 죽인 사람이 아내인 데이지라는 것을 알고도 윌슨을 교사하여 개츠비를 범인으로 몰아간다. 그곳에 서있는 광고판 속에서 그려지는 “T. J. 에클버그 안과의사의 두 눈”은 신과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내려다보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심판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한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윌슨이 개츠비를 살해하는 마지막 사건은 소설에서는 간접적으로 제시되지만, 영화는 시청각에 의존하는 장르인 만큼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소설에서 살인은 소설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장면으로 대체되는 반면, 영화에서 살인은 개츠비가 저택의 수영풀에 뛰어들었다가 수영장 밖으로 나와 전화벨을 듣는 순간 살해당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마지막 순간에조차 그는 울리는 벨소리를 데이지의 전화로 착각하여 그녀와 함께할 행복한 순간을 그리며 죽어가게 된다. 가질 수 없는 것을 끝까지 가질 수 있다고 순수하게 믿으며 생애 모두를 바친 개츠비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영화에서 리나르도 디캐프리오(Leonardo DeCaprio)는 이러한 개츠비의 모습을 혼신의 힘을 다해 보여주고 있다. 뉴욕은 “세상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을 약속해 주는”(74-5) 백색 도시처럼 솟아있다는 너의 설명대로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흰색으로 표현되는 한편 죽음의 이미지로도 그려진다. 개츠비를 권총으로 살해한 윌슨은 연이어 자살을 택한다. 개츠비와 머트 그리고 윌슨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로 부터 기만당한 채 비운의 죽음을 맞는다. 개츠비의 지인들은 그의 죽음을 외면한다. 영화 속 장례

식에는 닉만 참석한다. 테이지와 탐은 종적을 감춰 버리고 개츠비의 동업자인 울프샤임(Meyer Wolfshiem)도 닉의 간청을 물리치고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피츠제럴드는 화려한 뉴욕과 그 주변의 “재의 계곡”을 병치함으로써 1920년대 전후 미국 사회 화려한 영광 이면에 존재하는 비참한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황폐함이 이 두 지역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이 양면성을 화려한 영상미와 음악 그리고 배우들로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영화로의 융합으로 소설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10,11].

3. 결론

『위대한 개츠비』는 표면적으로는 이루지 못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면에는 1920년대 미국 전체에 관한 상징적인 고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과 유례없는 번영과 물질과잉시대에 나타난 “어메리칸 드림”의 붕괴를 담고 있다. 테이지의 사랑을 얻는 것이 개츠비에게는 곧 “어메리칸 드림”의 성취이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결국 개츠비의 비극적인 말로를 통해 “어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츠비가 위대한 이유는 그의 본질적인 목적이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정신에 있었기 때문이다[12,13].

닉은 개츠비에게 “당신은 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164)고 말하며 개츠비의 순수성이 위대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소설은 상당 부분을 독자의 해석에 맡기게 되지만, 영화는 시청각매체를 통해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문학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자의 해석을 유도한다. 루어먼 감독은 자신의 영화를 통해 1920년대 미국 사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관객은 『위대한 개츠비』가 지루하고 고답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고전을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할 수 있는 소설로 수용할 수 있다[14,15].

REFERENCES

[1] M. Adams. (2013). *A beautiful and evocative story of doomed love: Leonardo DiCaprio is in terrific form in The Great Gatsby*. The Daily Mirror. <http://www.mirror.co.uk/lifestyle/going-out/film/great-gatsby-review-leonardo-dicaprio-1890432>

[2] S. Jordison. (2013). *The Great Gatsby meets Baz Luhrman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ooks/booksblog/2013/may/22/great-gatsby-baz-luhrmann-reading-group>

[3] M. Hogan. (2013). *Baz Luhrmann, 'Great Gatsby' Director, Explains The 3D, The Hip Hop, The Sanitarium And More*. The Huffington Post. http://www.huffingtonpost.com/2013/05/13/baz-luhrmann-great-gatsby_n_3265327.html

[4] Andreas Teuber. (2017). *F. Scott Fitzgerald*. People.brandeis. <http://people.brandeis.edu/~teuber/fitzgeraldbio.html>

[5] K. Makarechi. (2013). *'The Great Gatsby' Is Better Than Its Reviews*. The Huffington Post. http://www.huffingtonpost.com/kia-makarechi/the-great-gatsby-reviews_b_3239966.html

[6] T. Stanley. (2013). *Baz Luhrmann's Gatsby isn't great, but Leonardo DiCaprio's sure is*. The Telegraph. http://www.huffingtonpost.com/kia-makBaz/the-great-gatsby-reviews_b_3239966.html

[7] H. L. Menchen. (1925). *The Great Gatsby*. Baltimore Evening Sun. <http://fitzgerald.narod.ru/critics-eng/mencken-gg.html>

[8] F. S. Fitzgerald. (1950). *The Great Gatsby*. New York : Penguin Books.

[9] J. Reiner. (2013). *'The Great Gatsby' Debate: Is Baz Luhrmann's Film Genius or Rubbish?*. The Daily Beast. <http://www.thedailybeast.com/the-great-gatsby-debate-is-baz-luhrmanns-film-genius-or-rubbish>

[10] M. Cowley. (1953). *The Romance of Money*.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1] R. Corliss. (2013). *Luhrmann's The Great Gatsby: From Jazz Age to Baz Age*. TIME. <http://entertainment.time.com/2013/05/09/luhrmanns-the-great-gatsby-from-jazz-age-to-baz-age>

[12] R. Lewis. (1985). *Money, Love, and Aspiration in The Great Gatsby*.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P.

[13] B. L. Heldman. (2013). *The Great Gatsby' Book to Movie: 5 Key Differences*. Yahoo! Movies. <https://www.yahoo.com/movies/blogs/movie-talk/great-gatsby-book-movie-5-key-differences-223158382.html>

[14] M. Z. Seitz. (2013). *The Great Gatsby*. Roger Ebert.com. <http://www.rogerebert.com/reviews/the-great-gatsby-2013>

[15] E. Levy. (2013). *Revolutionary Road: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Novel*. Emanuel Levy. <http://emanuellevy.com/comment/revolutionary-road-wh-at-you-need-to-know-about-the-novel-7/>

저 자 소 개

최 선 화(Sun-Wha Choi)

[종신회원]



- 1990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석사
- 2006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대림
대학교 영어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영어영문학, 문학, 영화, 융복합, 4차 산업